민족(국가)서사와 젠더

이경재*

1. 외부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현대사

『애국의 계보학-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만든 서사들』(조고은 옮김, 나무연필, 2023)은 미국 오벌린 대학의 동아시아학 교수인 실라 미요시 야거(Sheile Miyoshi Jager)가 2003년에 발표한 *Narratives of Nation-Building in Korea*를 번역한 책이다. 실라 미요시 야거는『애국의 계보학』 이외에도『형제들의 전쟁: 남북한의 끝나지 않은 갈등』(2013년),『또 다른 위대한 게임:한국의 개항과 현대 동아시아의 탄생』(2023) 등의 저서를 통해 한반도의 근대사와 한국전쟁을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한국 독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실라 미요시 야거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네덜란드계와 일본계의 후예로서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났다. 책 표지에 실린 소개에 따르면, 야거는 인류학 박사 논문을 준비하며 샤머니즘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1987년 6월 항쟁을 목격한 뒤 연구의 방향을 틀어 논문을 쓰고,『애국의 계보학』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간단히 정리하자면,『애국의 계보학』은 대한민국(북한도 일부 포함)을 건설하는 데 바탕이 된 서사와 젠더가 결합하는 양상을 탐색한 저서이다. 야거는 서론에서 “이 책은 한국의 역사, 젠더, 민족주의의 관계를 중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점적으로 다룬다."[1]며,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부상하고 그와 연동하여 국가가 등장하면서, 한국인이 자신을 젠더적 존재로 인식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명한다."(11)고 주장한다. 이 작품은 19세기 말에 본격화된 민족주의의 힘이 새로운 젠더 주체성을 생산하는 방식을 탐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저서는 서론 '민족주의와 젠더의 시선으로 본 한국사'와 세 개의 부(1부 근대 정체성, 2부 여성, 3부 남성), 그리고 에필로그 '김대중의 승리'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이 다른 나라의 역사를 살핀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외부인은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게 마련인 실감으로부터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인은 내부인이 볼 수 없는 참신한 시각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공동체 구성원과는 다른 시차를 통하여, 그동안 사각에 놓여 있던 면모를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실감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관점의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실라 미요시 야거의『애국의 계보학』은 한계보다는 새로움이 크게 드러난 저서라고 할 수 있다.

2. 근대 정체성의 시작

1부 '근대 정체성'은 1장 '남성성의 회복:신채호'와 2장 '감정의 탐구:이광수'로 이루어져 있다. 1장에서는 신채호를 중심으로 20세기 초에 형성된 군사적 남성성과 민족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며, 2장에서는 이광수

1) 실라 미요시 야거,『애국의 계보학-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만든 서사들』, 조고은 옮김, 나무연필, 2023, 11면. 앞으로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 본문 중에 면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를 통해 20세기 초에 한국근대문학이라는 개념이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매개가 되는 가운데 여성이 주체로 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신채호는 구한말에 군사적 남성성이라는 화두를 민족성과 연관시킨 근대 최초의 사학자로 소개된다. 신채호는 '양반'이라는 문약한 남성성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고대의 강인한 군사적 남성성을 제시한 인물이다. 그는 고대 장수의 남성적 이상, 일테면 고구려의 소도나 신라의 화랑 무사를 되살려 국가의 미래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것은 반군사적인 입장을 취한 조선 시대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쟁 영웅이 부각될수록, 조선의 지배계층이었던 양반은 심하게 격하된다. 신채호는 "양반을 '진정한' 한민족 전통의 재현이 아니라 하나의 일탈"(30)이라고까지 선언하였으며, 이는 "유교 사상 전체를 완전히 이질적 문화로 선언"(30)한 것이기도 하다.[2] "양반은 '국혼이 결여된' 존재"(37)로서, 신채호는 양반을 "한국의 '진정한' 민족사 연보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40)고까지 주장하였다. 양반은 거센 비난과 풍자의 대상이었고, "한국의 과거 및 민족문화를 비판하는 민족주의 저작과 식민주의 저작 모두에서 문제적 인물상"(38)이었던 것이다.

신채호에게 "근대란 진보를 향해 쇄신하는, 즉 투쟁하는 새로운 국민을 창조해야 하는 시대"(34)였고, 이 시대는 반드시 "'국민의 무혼武魂을 환기하며 무기武器를 양성'할 확신과 결단력을 지닌 사람"(34)을 요청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채호 이외에도 박은식, 장지연과 같은 민족주의자들도 "한국사에서 전쟁 영웅이 담당했던 역할을 '재발견'하기 시작"(37)하였으며, "영웅 재발견 기획은, 한국의 '노예적 문화 사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군사 국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작업과 밀접하게 연결"(37)되

2) 흥미로운 것은 "조선왕조의 은유적 의인화인 양반에 대한 재현"(29)이 한국 민족주의 담론과 일본 식민주의 담론 모두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었다.

동시에 1925년 이후 신채호가 보여준 아나키즘은[3] 그의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투쟁의 주체로 “초남성적 이상”(42)을 제시했다고 말한다. 야거는 단재의 아나키즘이 “초국가적이자 제국주의적인 이상을 되찾으려는 시도”(43)라며, “을지문덕이 품은 제국주의적 비전”(46)과 연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민족 투쟁의 새로운 주체는 전쟁 영웅 개개인을 넘어 “한국 고유의 호전적 민족”(46)으로 확장된다고 주장하는데, 주목할 것은 단재의 “이와 같은 군사(그리고 이후의 군사화된 민중)에 대한 재평가는 박정희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47)는 점이다. 박정희는 “한국의 ‘거세된’ 과거에 대한 신채호의 견해를 바탕으로 강하고 자주적인 국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구축했다.”(47)고 주장한다.

2장 ‘감정의 탐구:이광수’는 이광수를 통해 20세기 초에 한국근대문학이 민족(주의)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탐구하고 있다. 야거는 “한국 근대문학은 번역된 문학으로부터 출발했다.”(54)고 하여, 한국근대문학을 철저히 ‘번역’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새롭게 보편화된 근대성의 어휘 목록(국가, 진보, 계몽, 문명 등)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이는 서구의 용어를 ‘번역’한 일본어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53)는 것이다. 이를 문제적 문인인 이광수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데, 야거는 이광수의 소설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것을 ‘번역’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도시 간 여행, 해외 여행, 기차 여행, 병과 회복 등”(53)도 ‘변역’ 장면이라 이야기되며, 이광수의 작품에 묘사된 미학적·정서적·국가적 각성의 장면 역시 ‘번역’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이 더욱 문제적

3) 야거는 신채호 사상의 진화를 1) 영웅 중심의 민족사관, 2) 영토국가/민족의 탐구, 3) 아나키즘의 수용과 함께 이뤄진, ‘국가 없는’ 민중에 대한 초국가적 탐색의 세 단계로 나눈다.(43면)

인 것은, 이것이 "일본어 번역의 '재번역'"(66)이기 때문이다.

유교적 중세를 거부한다는 면에서, 이광수는 신채호와 유사하다. 그러나 유교적 중세를 부정한 자리에 대안으로 놓인 것이, 신채호에게는 군사적 남성성인 반면 이광수에게는 '정의 추구'라는 면에서 둘은 구별된다. 주의할 것은 이 때의 정이 "'발견'인 동시에 '회복'"(81)이라는 점이다. 야거는 이광수가 문학의 최우선 목표로 "인간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59)을 꼽았으며, 이 새로운 감각은 "이광수가 번역을 통해 문학의 근대적 개념을 차용함으로써 만들어졌다."(62)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광수가 추구한 '정'이 하나의 '발견'임을 드러낸다. 동시에 이광수의 근대적 항해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움직임인 만큼이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회복'은 중국과 연관된 유교적 중세를 거부하고 상실했던 한국의 과거를 다시 연결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광수는 「춘향전」이 "유교적 도덕성의 엄격한 규범이 '강제'되면서 비극적으로 억압된 한국의 본래적 정(혹은 정신)을 가장 진실하게 되살린 표현"(79)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정의 추구는 "진실하고 이상화된 과거/감정의 회복"(79)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게 된다. 사랑의 정신적 충만은 예부터 지금까지 늘 존재했음에도, "오랜 세월 유교적 도덕과 사회 규범에 의해 억압되어왔을 뿐"(81)인 것이다.

이러한 정의 '발견'과 '회복'의 핵심적인 주체는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설정된다. 야거는 「소년의 비애」를 분석하며, "여성과 국가는 서로 다른 두 길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합류한다."(74)고 하여 여성과 국가를 일치시켜 논의를 전개한다. 또한 문명과 계몽을 향한 길이 집에서 시작하기에, 집의 전통적 수호자인 여성은 "개화, 진보, 자기 인식, 국가성에 관한 모든 '항해'가 시작하고 끝나는 정신적 기반"(83)이 된다.

3. 20세기 여성 서사 혹은 이미지

2부 '여성'은 3장 '국가에 대한 사랑의 기호'와 4장 '현모양처, 애국부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2부에서는 '열녀/신여성의 수사'가 20세기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논하고 있다. 3장에서는 여성이 20세기 초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기호 및 주체가 되는 방식을 검토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랑, 결혼, 정절이라는 사적 맥락이 정치적 담론과 연결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전통적 여주인공은 남편에 대한 고결한 절개로 존경받았지만, 이제 그 절개는 식민지가 된 국가와 민족을 향한 것으로 옮겨간다. "여성을 '국가'에 대한 탁월한 기호로 전유함으로써, 20세기 초 한국의 작가들은 일제 치하의 억압적 상황을 남성에게 억압받는 여성의 전통적 상황과 연관해 묘사"(95)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광수의 『무정』(1917)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무정』에서 이광수는 영채의 몸에 "빈곤, 무지, 가부장제, 유교 등 국가적 고난의 의미를 부여"(105)했다고 본다. 야거는 독특하게도 이광수의 『무정』이 『춘향전』을 "다시 쓴"(92) 작품으로 제시하는데, "이광수는 연인의 이별과 재회라는 전통적 플롯을 남성의 배신과 여성의 역량 강화 이야기로 다시 풀어낸다."(102)고 주장한다.

야거는 『무정』에 대한 논의를 영채 중심으로 수행하며, 그렇기에 "『무정』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96)가 된다. 기본적인 서사에 있어, 야거는 『춘향전』의 이몽룡이 이야기 말미에 춘향에게 돌아와 상황을 만회하는 것과 달리, 『무정』의 형식이 약혼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주목한다. 영채는 또 다른 여성 병욱에게 구원을 받으며, "영채를 구해주는 '개화된 신여성' 병욱"은 "남성이라는 특권적 위치를 찬탄"(98)한다고 반복해서 주장한다.[4] 이러한 병욱은 "국가

의 '재탄생'을 끌어내기에 가장 적합한 이미지"(110)로까지 의미부여된다. 『무정』에서 형식은 철저히 무능하거나 부재하는 존재로 규정되며, 이러한 "형식의 상징적 부재는 영채가 근대성을 '재각성'하는 기반이 되어"(101)줄 뿐이다. 야거는 이광수가 국가와 근대성의 이름으로 "여성을 특권적 협상의 장소"(112)로 삼았다고 결론 내린다.

4장 '현모양처, 애국부인'에서는 1980년대 "국가의 헤게모니적 주장에 도전하는"(115) 학생운동의 민족주의 서사를 다루고 있다. 4장에서는 1980년대 학생운동권도 '춘향'으로 대표되는 열녀의 형상을 민족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춘향의 저항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민중의 투쟁에 대한 정치적 이야기로 해석"(128)되었으며, "학생운동 세력은 이 지배적 서사 전략을 자기 나름의 말로 '번역'해"(129)냈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당하게 분단된 조국의 상황을 "생이별을 겪은 채 서로를 그리워하며 재회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연인/부부의 낭만적 서사로 설명"(248)하기도 한다. 고유한 한국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구와 대비되는 전통적 가치 및 관습을 강조해야 했는데, 이러한 강조는 대부분 "정절을 지키는 '고결한' 여성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졌다."(116)는 것이다.

야거는 "분단 조국에 대한 '로맨스' 서사가 최초로 출현한 것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항쟁이 잔혹하게 진압한 뒤"(116)라며,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주요 지도 이념인 주체론도 "새로운 '낭만적' 서사 전략을 만들어냈다"(120)고 주장한다. 야거는 이 국가적 분투와 구원의 낭만적 이야기에서 여성은 "통일의 날을 기다리는 고결한 여인의 이미지"(123)를 부여받는다고 말한다. 동시에 "분단에 대한 저항과 거기에 함

4) 야거는 『무정』에서 병욱과 같은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여성은, "영채에게 책, 사상, 시적 성찰의 세계를 소개해준"(106) 기생 월화라고 설명한다.

축되어 있는 통일을 향한 고결한 투쟁은 외국 남성에 대한 저항이라는 비유적 형태"(130)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의 분단은 여성-국가-육체에 대한 폭력, 즉 신성한 부부 관계에 대한 불온한 침입이자 (외국) 남성이 (선주민) 여성을 지배하는 음탕한 행동으로 해석"(132)되며, "서구, 특히 미국의 문화적 오염이라는 위험은 강간, 불감증, 여성의 재생산 능력 상실에 관한 주제로 공식화되면, 이는 다시 한국의 국가 정체성 존속에 대한 서구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여러 문제와 연관"(133)된다.

신채호와 마찬가지로 주체론도 "한국인의 역사 전체를 외세의 지배와 봉건적 압제를 극복하기 위한 장대한 투쟁"(133)으로 파악하며,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이 결합하는 것은, "가정의 존립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의 근본적 정체성 및 응집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135)된다. "서구라는 '외부성'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전유된 민족주의적 수사는 여성을 한국의 내면성을 담은 '고결한' 지표로 만들어"(137)내고, "여성의 정조(나아가 결혼)에 대한 위협은 국가 그 자체의 온전성 및 '내적'(종속적) 연속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된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부부 재결합의 약속은 국가 정통성 회복을 향한 희망의 상징"(137)이 되는 것이다. 이는 1980년 학생운동의 서사 역시 결국 민족주의의 주체인 남성과 이를 가능케 하는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이분법을 강화하는 범주라는 점을 시사한다.

4. 군사적 남성성과 유교적 관습

3부 '남성'은 5장 '박정희와 농업의 역군들'과 6장 '학생들, 그리고 역

사의 구원', 그리고 7장 '기념비적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 3부에서는 신채호에게서부터 나타났던 '영웅적인/사나이다운'이라는 남성성의 수사가 박정의 정권(5장)과 학생운동(6장), 그리고 전쟁기념관(7장) 등 한국 현대사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되는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5장과 6장에서는 20세기 후반 남한과 북한에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된 남성 표상, 즉 '박정희'와 '김일성'이 주요한 탐구 대상이다. 박정희는 스스로를 신라 및 화랑정신의 후예로 내세웠으며, 유신헌법을 선포한 이후에는 자신이 "한국 민족 '전통'의 유일한 적통의 계승자임을 자임"(18)했다고 주장한다. 7장에서는 "용산의 전쟁기념을 통해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검토하면서 투쟁하고 구원받는 영웅적 남성성이라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탐구"(18)하고 있다.

5장에서는 한국의 근대화를 추구했던 박정희를 설명하는 개념적 어휘 및 서사의 일관성을 탐구하고 있다. 야거는 "박정희의 비전은 20세기 초 한국 민족주의자들의 민족자강 이데올로기와 매우 유사하다."(143)고 말한다. 박정희는 20세기 초 한국 민족주의자들처럼 '쇠락한 남성성'이라는 '조선 시대 남성성(양반)'을 강력하게 부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가 묘사한 한국의 후진성은 주로 군부의 정권 장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뿐"(164)이었다는 점에서, 신채호와 같은 민족주의 개혁가와는 구분된다. 자주적이고 군사적인 남성성에 대한 담론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4월에 시작한 농촌 근대화 운동인 새마을운동"(144)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생활 습관에서든 정신 상태에서든 한국의 후진성은 '진정한' 무사 정신의 부활 및 함양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무언가로 지속적으로 환기"(153)되었고, 이 때 제시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웅 이순신이다. 박정희는 군사적 남성성을 대표하는 이상적 이미지로 이순신을 제시하며, 이순신에 대한 무능한 관리들의 모함은 자신에 대한 민주화 세

력의 저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5)]

흥미로운 것은 야거의 이러한 인식이 신채호와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물론이고, 식민주의자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박정희는 '진정한'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근대 초 민족주의 및 일본 식민주의가 사용하던 무력하고 무능한 양반의 이미지를 차용"(162)했으며, "전통적인 시민 및 유교적 국가 지배 이념의 '열등함'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써 '열등한' 한국을 거론"(163)했다는 것이다.[6)] 야거는 식민주의의 담론적 실천과 새마을 운동의 담론적 실천이 "동일한 이데올로기적 기법과 전략을 상당수 공유하고 있으며, 양쪽 모두 발전과 근대성에 관해 동일한 원칙을 근거로 삼고 있다"(163)고 주장한다.

6장에서는 198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이 세대를 초월하여 전해 내려온 "부성에 대한 애국 서사를 어떻게 복제, 재생해왔는지"(167)를 살펴보고 있다. 야거는 한국의 '급진적' 학생들은 전통적 유교 관습 및 가치에 저항하기는커녕 이를 자신들의 '애국적' 저항 활동을 정당화해주는 규범으로 여기곤 했다는 것이다. 주체론[7)]에서는 "유교 관습에 충실한 효자들이 애국자가 된다"(181)며, "김일성을 유교적 부성의 최선의 모델로 찬양하

5) 이에 반해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애로운 부성'을 강조한 전략을 내세웠다고 주장한다.

6) 이와 관련해 역자인 조고은은 "박정희는 개화기 식민주의자들이 설정했던 구도와 비슷하게 과거 한국의 농민은 마치 조선 시대의 양반처럼 나태하고 무능했기에 과거의 악습을 모두 버린 뒤 근면하고 현대적인 새마을 지도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248)고 말한다.

7) 주체론은 "한국의 혁명적 주체와 미국 '제국주의'의 갈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해방기의 역사에서 "한국 민중은 역사의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라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적극적으로 역사를 되살리는 주체로 등장"(171)한다. 주체론은 "자신의 운명을 실현하는 한국 혁명 주체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역사적 실패가 실재한다는 점을 부정"(172)한다며, "주체론은 역사적 과거를 탐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혁명적' 미래를 통해 과거를 회복시켜 이를 찬양하는 데 관심이 있"(172)다.

면서 남한 지도자들의 정치적 정당성에 도전했다"(181)고 주장한다. 주체론에서 "김일성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아버지의 애국 투쟁 이야기로서 이는 아들의 투쟁결의로 이어"(184)지는데[8],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는 박정희의 민족주의적 역사관과 서사 구조에 내재된 민족적·남성적 회복의 비전과 다르지 않다"(184)는 점이다. 또한 김일성의 이야기는 "효성스러운 아들에서 자애로운 아버지로 성장하는 자기수양의 여정과 다를 바 없었다."(187)고 설명된다. "김일성이 부성적 자애로움을 가진 인물로 찬양되는 이유는 그 위대한 수령이 인민의 사적 고통에 친밀한 가족적 방식과 공적인 정치적 방식 모두로 응답했기 때문"(190)이며, 그의 정치적 페르소나는 "추종자들과 사적 시민(아버지, 형제, 아들)으로서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것을 공적 관계로 만듦으로써 설득력을 지닌다"(189)는 것이다. 야거는 학생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자부(慈婦)와 효자(孝子)로 자처했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유교적 가족 윤리"(195)에 바탕한 것이다.

7장 '기념비적 역사'는 서울시 용산구에 건립된 전쟁기념관을 통해 "공식적 기념 문화의 남성적 논리를 탐구"(199)하고 있다. 야거는 전쟁기념관(1991년에 착공하여 1994년 6월 개관)이 "지금은 상실하여 잊힌 군사 전통, 그 '남자다운' 과거와 연결되는 고대 한국을 미화하는 동시에, 고대의 군사적 가치를 '회복'시켜줄 현대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강조하는 기념물"(199)이며, "이곳에서는 전쟁으로 얼룩진 과거의 비참한 상태에 대항하는 남자답고 강력한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울려 퍼지며, 분단된 미래라는 곤경에 저항하는 애국적 가치로서 남성성과 형제애를 내세

8) 야거는 한국의 새로운 '민족주의' 소설, 일테면 박경리의 『토지』나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이 "정치 투쟁을 면면히 이어지는 가족 드라마의 관점으로 묘사하며 한국사를 개인화했다"(177)고 본다. 이러한 서사에서는 "아들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과거 부친/조부의 실패에 회복의 비전을 제공"(179)한다고 본다.

운다.”(199)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 기념관은 “국가적 ‘진보’를 군사적 역량과, 경제적 ‘생존’을 군사적 남성성 숭배와 연결시키려는 사회진화론, 군사주의, 민족주의의 역사적 유산을 계승한다.”(200)고 말한다.

나아가 “미래의 조국 통일은 과거 영웅의 업적을 신성하게 되새김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208)고 주장한다. 전쟁기념관에서는 신채호나 박정희와 달리, 조선사마저 ‘승리한’ 현재에 어울리도록 군사적 남성성과 연결시키며, 이 때 중심이 되는 것은 이순신이다. “외세의 침략과 국가의 내분을 뒤로한 채 거둔 이순신의 승리는 북한 공산주의와 국가 분단에 대한 남한의 (최종적) 승리를 떠올리게”(214) 하며, “전쟁기념관은 이순신의 ‘효심 깊은’ 후예로서 국가를 정당화”(214)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본질을 군사 전통에서 찾고 있으며, 남성적인 군사적 전통을 통해 통이 한국의 비전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기념관에서는 “군대에 민족 공동체와 ‘국민’을 정의하는 주요 행위자라는 특권을 부여”(218)하고자 하며, 한민족의 본질은 “신화적 군사문화와 결부”(218)된다. 전쟁기념관 야외에 설치된 <형제의 상>을 통해, 전쟁기념관을 만든 정부가 상정한 남북통일의 의미를 분석하기도 한다. “남한은 한국의 애국 전사 전통의 ‘정당한’ 계승자인 형님으로 그려지며, 이 형님이 나약하고 제멋대로인 아우를 용서하는 것이 북한이 마침내 가족/국가의 ‘두 팔’에 안겨 그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222)는 것이다. 또 다른 설치물인 광개토대왕비를 분석하며, 그것이 한국사에서 유교주의를 대체할 대안적 전통으로 기능하며 “고구려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며 북한도 자연스럽게 포섭”(226)한다고 주장한다.

5. 새로운 남성성의 출현

기본적으로 20세기 한반도의 지도자들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유교적 남성성을 모두 부정하였다. 그것은 신채호, 이광수, 박정희, 김일성, 노태우 등의 모든 인물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 때의 유교적 남성성은 문약함, 나약함, 사대주의 등으로 대표되며, 그러한 부정적 속성이 망국, 가난, 후진성을 불러온 것으로 규정된다. '유교적 남성성'에 대한 부정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부정의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강인한 무사로서의 남성성을 추구한 신채호나 박정희와 달리, 이광수는 오히려 조선 시대 남성성의 문제는 '사랑의 부재'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야거는 이광수가 남성성이 아닌 여성성을 새로운 국가 이미지와 서사의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무정』에서 영채는 계몽된 신여성 병욱의 도움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주역으로 탄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광수 역시 유교적 남성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에필로그에서는 "김대중 버전의 남성성"(19)이 지닌 특이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대중의 정치는 "신채호와 박정희가 이상화하던 (군사적) 남자다움의 형식을 선택적으로 거부하고 있"(234)으며, "진보에 대한 사회진화론적 관념보다는 고통과 구원이라는 기독교적 관념에 훨씬 밀접하게 연결"(234)돼 있다. "기독교적 용서에 대한 이상에 기반을 둔 김대중의 강렬한 신심은 그의 정치와 활동을 형성해온 원천이자 이념적 토대"(234)라는 것이다. 김대중의 정치가 이상화하는 남자다움의 형태는 "적에 맞서 싸우는 투사도, 생존 투쟁에서 살아남는 '적자適者'도 아닌, '그저 견디는' 남자"(236)이다. 그렇기에 김대중의 역사관은 "민족주의적 시각과는 상당히 다르"(237)며, 김대중의 역사관은 "모종의 초월적 목표, 즉 만인을 위한 민주주의, 자비, 용서라는 보편적 승리를 향한 진보의 기

록”(237)으로 규정된다. ‘김대중 버전의 남성성’은 ‘군사적 용맹함이 아니라 기독교적 용서에서 비롯된 정신적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새로운 고민과 남겨진 과제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실라 미요시 야거는 네덜란드인과 일본인의 피가 섞인 미국인이다. 그런 그녀는 외부인의 시각으로 한국의 현대사를 젠더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다. 야거는 한국인이 그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너무나 많이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반대의 정치적 입장을 소유했다고 생각한 신채호와 박정희가 모두 군사적 남성성을 추구했다는 점, 20세기 대부분의 정치적 주체들이 여성을 고통받는 국가의 표상으로 활용했다는 점, 1980년대 급진적 학생운동 세력들이 유교적 관습 및 가치를 규범화했다는 점, 민족주의자와 식민주의자의 공통된 시각이 새마을운동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한국인을 충격하는 참신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야거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연구하면서 내가 명백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적 개념은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문화나 집단에서 비롯한 것이든 ‘종속된’ 곳에서 비롯한 것이든 결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억압적이거나 해방적이지는 않다는 점이다.”(21)라고 서론에서 밝히고 있다. 『애국의 계보학』은 이러한 저자의 입장이 구현된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적 가족 윤리’는 조선 시대의 유학자, 구한말의 민족주의자, 해방 후의 권위주의 정권, 1980년대 급진적인 학생운동 세력들에 모두에 공통적으로 잠재되어 있지만, 그것이 구현하는 담론효과는 이념적 스펙트럼의 양끝을 넘나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이 놓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맥락에 따라 전통적인 억압의 질서에서부터 급진적인 해방/통일의 의미까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실라 미요시 야거의 『애국의 계보학』은 대한민국(북한도 일부 포함)을 건설하는 데 바탕이 된 서사와 젠더가 결합하는 양상을 탐색한 실증적인 저서인 동시에, 민족(국가)와 젠더의 일반개념까지 제시한 이론서로서의 면모까지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야거의 『무정』 해석에 대해서이다. 야거는 『춘향전』과 달리 『무정』에서 여주인공 영채는 무기력한 남성인 형식이 아니라 근대적 가치로 계몽된 신여성 병욱의 도움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주역으로 재탄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무정』에 대한 논의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형식의 성격 문제에 있어서 형식을 너무나 소극적이며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형식은 일관되게 무능하고 무력한 식민지 남성으로서 어떠한 가능성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이와 관련해 "특히 소설 말미에서 세 명의 여성 주인공이 힘을 모아 수재민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을 때 형식의 존재가 극히 미미해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진보적인 여성 이미지(병욱)가 지닌 권위가 귀향하는 가부장 권력이라는 전통적인 지배 이미지를 대체한다."(108)라고 말하는 대목은, 해석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오독에 가깝다. 다음의 인용에서와 같이, 마지막 장면에서 형식은 영채와 선형은 물론이고 병욱이 앞에서도 형식은 일종의 지도자로 군림하기 때문이다.

> 저들에게 힘을 주어야 하겠다. 지식을 주어야 하겠다. 그리하여서 생활의 근거를 안전하게 하여주어야 하겠다.
>
> "과학(科學)! 과학!" 하고 형식은 여관에 돌아와 앉아서 혼자 부르짖었다. 세 처녀는 형식을 본다.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먼저 과학(科學)을 주어야 하겠어요. 지식을 주어야 하겠어요" 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거닌다. "여러분은 오늘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몰랐다. 한참 있다가 병욱이가

"불쌍하게 생각했지요" 하고 웃으며 "그렇지 않아요?" 한다. 오늘 같이 활동하는 동안에 훨씬 친하여졌다.

"그렇지요. 불쌍하지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문명이 없는 데 있겠지요 — 생활하여갈 힘이 없는 데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들을…… 저들이 아니라 우리들이외다……저들을 구제할까요? 하고 형식은 병욱을 본다. 영채와 선형은 형식과 병욱의 얼굴을 번갈아 본다. 병욱은 자신 있는 듯이

"힘을 주어야지요! 문명을 주어야지요!"

"그리하려면?"

"가르쳐야지요! 인동해야지요!"

"어떻게요?"

"교육으로, 실행으로."[9]

이러한 형식의 모습은 세 여성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나 선각자에 가깝다. 심지어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일장 연설을 펼치는 형식을 보며, 영채가 "오년 전 월화와 함께 패성학교장의 연설을 듣던 것을 생각"(462)하며, 그 당시 패성학교장이 하던 연설과 "형식의 말에 공통한 점이 있는 듯이 생각"(462)한다. 패성학교장은 도산 안창호를 모델로 한 인물로서, 『무정』의 대타자라 부를만한 인물이다.[10] 김동인은 『춘원연구』(1935)를 통해 일관되게 형식의 돈키호테적이며 좌충우돌하는 성격을

9) 이광수, 『무정』, 김철 편, 문학과지성사, 2005, 461-462면.

10) 이경재, 『한국 현대문학과 민족의 만화경』, 소명출판, 2023, 113-143면.

비판하지만, 마지막의 삼랑진 수해장면에서만은 형식의 지도자적인 모습을 상찬하기도 하였다.[11] 이와 관련해 야거가 기본적인 사실의 오류에 바탕해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정』의 플롯은 "영채의 사랑이 순전히 '허구'임을 지속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역설적인 방식으로 「춘향전」에 헌사를 보내고 있다."(101)며, 그 근거로 형식이 영채에게 한 말이라며, "영채 씨는 지금까지 꿈을 꾸고 지내셨지요. 얼굴도 잘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허합니까. 영채 씨의 과거사는 꿈입니다."(101)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형식이 영채에게 한 것이 아니라, 기차에서 만난 병욱이 영채에게 하는 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채만큼의 비중을 지니는 또 한 명의 여성인 선형의 존재가 논의에서 사라지고 없다는 점이다. 형식은 삼랑진 수해를 만나기 전까지 영채 앞에서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지만, 그것은 김장로의 딸 선형과 약혼을 했기 때문이다. 형식은 이제 장안의 부자이자 개화 지식인인 김장로의 당당한 사위인 것이다. 야거의 논의에서는 선형과의 관계에서 형식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다. 이것은 야거가 형식의 존재의의를 최대한 낮추어 보는 것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야거는 왜 이토록 형식의 존재 의의를 지우려 했던 것일까? 그것은 그녀가 한국의 근대를 철저히 '번역'적 관점에서만 해명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한국의 근대가 이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그 오래된 이식사관과도 연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야거는 국가/민족 담론과 학생운동 담론에는 모두 "부성父性에 대한 원초적

11) 방민호는 김동인이 "형식을 '과도기'의 인물로, 신사상을 추구하나 구사회의 탯줄을 잘라버리지 못한 인물로 간주한 위에 이렇게 유학, 교육, 실행을 주장한 대목에 상찬을 집중함으로써 『무정』은 일방향적, 일면적 해석의 길로 접어들어 고정화 된다."(방민호, 『이광수 문학의 심층적 독해』, 예옥, 2023, 101면)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불안이 잠재"(20)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식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철저한 무(nothing)로서 존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개인의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서사를 통해 구성되듯이, 한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 역시 서사를 통해 구성된다. 이 때의 서사는 젠더적 구별과 상징을 통해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라 미요시 야거의『애국의 계보학』은 20세기 한국이 어떠한 젠더적 전략과 수사를 통하여 고유한 민족(국가) 서사를 구축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각 시대는 자기 시대에 걸맞는 나름의 서사를 구성하며, 그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아로새겼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현대사는 '군사적 남성성'이나 '가부장적 남성성' 혹은 '수절하는 여성성' 등을 통해 나름의 민족(국가) 내러티브를 만들어왔다. 20세기 말에는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용서와 인내에 바탕한 '기독교적 남성성'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어느새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사반세기가 되어가고 있다. 20세기로부터 물려받은 과제는 변함이 없는데, 기후위기 등의 새로운 과제까지 우리의 어깨에는 새롭게 놓여진 상황이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이상적인 민족(국가)의 서사(이미지)나 젠더적 특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이야말로『애국의 계보학』이 우리에게 던져준 최종적인 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